



무주촌 배경 화폭에 담아

최북미술관서 김학근 초대전
무주사람들이 일제 강점기때
중국 갈림성으로 강제 이주돼
집성촌 이뤄... 사실감 있게 다뤄

무주군은 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최북미술관에서 김학근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에 위치한 무주촌을 배경으로 한 김학근 작가의 작품이며, 19점을 전시하고 있다.

중국 무주촌은 갈림성 안도현 소사하향에 있는 마을로 무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때 강제로 이주 돼 집성촌을 이룬 곳이다. 작품은 옛 중학교 해우소를 비롯한 무주촌 전경, 무주소학교 등을 사실감 있게 다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먼 대륙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중국 갈림성 무주촌의 설경이 화폭 가득하게 펼쳐진다. 그림 속에는 고향이라는 이미지로 스케치를 하고 삶의 채취로 색칠을 했으며, 바탕색은 그리움으로 한편의 서정시로 그렸다. 무주의 계절이 깃든 집, 산과 들, 나무와 농촌 풍경 등 눈이 쌓인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진 무주만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겨져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① '두만강변 고성리'
- ② '무주촌 가는 길'
- ③ '무주촌 겨울이야기'

▶ 신간 도서

14살 소녀 디타 크라우스 실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가스실, 소각장 등 대량 학살의 현상이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도 도서관이 있었다. 수용소 제31블록에 위치한 작은 비밀학교, 그곳은 사람들이 너털너털 털어진 책들을 목숨처럼 지켜가며 소중히 읽었던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서도 존재했다. 14살 소녀 디타 크라우스였다. 최근 출간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실존 인물 디타 크라우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화 소설이다. 저자는 스페인의 언론인이자 작가, 교수인 안토니오 이투르베다. 그는 디타의 이야기를 접하고는 집필을 결심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수 소문 끝에 아우슈비츠 사서를 맡았던 디타 크라우스를 직접 만나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장 여정 옮김, 512쪽, 북레시퍼, 1만6000원. /뉴스



전주한벽문화관, 온라인 콘텐츠 공모 선정

전주한벽문화관(관장 성영근)은 2020년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한 사고 확장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과 예술창작이 융합된 공연예술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총 60개 단체가 지원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22개 단체가 원역 PT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단체가 선정됐다. 전주한벽문화관이 제안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아이트윈 iTwin)'은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는 순수예술단체와 예술기업의 활동을 재단

이 매개체가 돼 지원함과 동시에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해 선도적·융합적 방식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이며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가상 악기 등 전문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통예술 연희자의 무대연출을 원격으로 제어해 실시간 공연 연출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성영근 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연예술 연출에 대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물로 살펴보는 만복사지

남원시, 내달 9일까지 특별전
4엽 연화문 수막새 등 선보여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 내 향토박물관에서 12월 9일까지 만복사지 출토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광주박물관, 전북대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던 만복사지 출토 유물들로, 1980년대 발굴조사 당시 출토자료인 4엽 연화문 수막새, 귀면문 압막새 등 약 50여점을 선보인다. 만복사지(萬福寺址)는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고려 시대에 지어진 만복사의 터이다. 만복사는 고려 문종대 창건된 것으로 전하며, 조선시대 정유재란 당시 소실된 사찰이다. 도시에 위치했던 사찰로서 당시 전성기의 만복사는 대웅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과 수백 명의 승려들이 머무는 큰 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복사지를 발굴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 사찰의 중심부를 발굴 조사하였다. 현재 만복사지에는 오층석탑(보물 제30호), 불상좌대(보물 제31호), 담간지주(보물 제32호), 석불입상(보물 제43호) 등이 현재 절터 내에 남아 있으며,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정취를 맛보기 위해 지금도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체부 도서정가제 개정안 환영”

출판문화계, 재평가 제도 허용기준 기한 12개월로 완화에 따라

올해 도서정가제 개정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었던 출판문화계가 전남 문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출판·문화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온 도서정가제의 재정 취지를 이해해주고 개악을 막아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자리에 모여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 내준 작가, 서점, 독서단체, 도서관인, 출판인, 관련 문화인 모든 분들께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남 큰 틀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도서의 가격을 다시 책정하는 재평가 제도 허용기준 기한을 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우리 출판 문화인들은 도서정가제가 우리 사회의 문화를 더욱 융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도서정가제가 보다 더 탄탄하고 공고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도서정

가제의 수호뿐만 아니라 문화가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열망을 모아 건강한 출판·문화 생태계를 만들고 지켜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 시행됐다. 정가의 10% 할인과 5%의 포인트 적립 등 금전적 이익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3년마다 유지, 개정해야함에 따라 2017년에 이어 올해가 개정안 마련 시기이다. 올해에는 문체부 주도 하에 민관협의체가 운영돼 잠정협의안이 도출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등의 이유로 잠정협의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출판·문화계 36개 단체는 항의의 뜻을 모아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각 계 여론조사와 1인 시위, 성명 발표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도서정가제 개악을 반대해왔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물론 출판·문화 생태계의 발전과 바람직한 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판 문화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